

# 2015 세계교육 포럼의 의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최 정 운

다가오는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 세계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될 중요한 교육 행사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바로 2015 세계교육포럼이다. UN 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교육포럼은 글로벌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국제 기구 대표와 주요 인사, 195개 회원국 대표, 다자기구 및 지역 협의체 관계자, NGO 관계자 및 민간 부문 전문가, 교사, 언론 관계자 등 국제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교육 행사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 범세계적 교육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탄생시킴으로서 국제적으

로 주목을 받았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하 EFA)’은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 받을 권리가 빈부,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 공약으로 1990년 태국 줌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정책 목표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범세계적 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줌티엔 회의에서 채택된 EFA 교육목표는 2000년 세네갈 다카르 포럼에서 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초등교육 보편화,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 등 6개의 목표로 재탄생하였고 ‘다카르 행동계획’이라는 새로운 실천 전략을 통해 보다 정련화되었다. 또한 다카르 포럼을 통해 설정된 6개의 교육 목표 중 영유아 교육 및 초등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은 2000년 UN이 주도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포함되었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목표는 1990년 태국 줌티엔 세계교육회의를 통해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과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교육 분야 성과 종합평가 등을 통해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 교육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15 세계교육포럼은 2015년 이후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를 확정짓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 교육 분야,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전환기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 때 설정한 국제교육목표와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정해져 있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5년 간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과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새로운 교육 목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확정된 글로벌 교육 의제는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이 수반되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교육 부문 개발협력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2015 포럼이 내놓는 결과에 집중될 것이다.

둘째, 2015년 포럼은 시기적 측면에서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의제의 내용과 실천 주체 측면에서도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1990년과 2000년 세계회의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라는 획기적 교육의제가 마련되었다. EFA를 통해 국제사회는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EFA는 국제교육 의제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초교육을 공교육 체제 내 초등교육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 청소년 및 성인 문해교육, 비형식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EFA의 핵심 목표인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에서 양성평등 실현은 전세계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의제(MDGs)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국제교육의제로서 EFA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

## 이슈진단 및 분석

다. 논리적 개연성 부족을 지적하는 이도 있고 느슨한 목표와 모호한 추진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글로벌 교육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예도 불구하고 EFA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이러한 기존 교육 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4년 7월까지 논의된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안)은 최소 9년의 무료·의무 기초교육 보장과 학습성과 달성, 직업교육/후기중등/고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직업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 습득 등 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2015 세계교육포럼 의제(안)을 살펴보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의 질과 적합성에 대한 강조, 지구촌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인식 등이 세부 목표에 포함되어 과거 교육 의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럼이 개최되는 2015년 5월까지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국제행사이다. 유네스코는 1990년과 2000년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교육포럼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요청(2013. 6. 25.)하였고 이를 한국 정부가 수락함으로써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즉,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교육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인 것이다. 과거 한국은 국제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교육 의제가 국내 교육 현안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였고 국제의제를 주도할 역량도 미흡하여 세계교육포럼에서 단순 참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교육발전을 기반으로 국가사회발전을 이룩한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제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단순한 회의 유치국 역할을 넘어 미래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내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총괄 심의 조정 기구인 세계교육포럼 준비위

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국책연구원장 등 위촉직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과거에 유치한 국제회의에서 의제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 터하여 지난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이후 한국적 상징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한국적 의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표단이 지지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글로벌 교육 의제 세부목표(안)에 포함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본회의의 전체세션 프로그램으로서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 분야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국제 교육의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국제 포럼, 상설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심이 된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는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한국이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교육포럼 개최 성공은 이번 포럼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내적으로 국제교육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교육 현안 문제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재설정하는 논의의 장이 될 때 가능하다는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2015년에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서 단순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 설정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의제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표면적으로 교육 의제 설정은 교육외교에 관한 사안이며 일부 정부 관료의 과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세부 목표나 전략 채택을 놓고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외교적 활동은 교육 행정 관료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활동도 각국 내 전문가, 특히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

글로벌 교육 의제에 관한 국내 담론 형성 이외에 성공적인 포럼 개최에 필요한 과제는 다양한 국내 교육 역할자들이 국제사회와 공유할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의 소재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누구보다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의 삶과 국가 발전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에 공히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논의 중인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안)에 처음으로 고등교육이 언급되었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의 틈을 얻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실로 짧은 기간 동안 성장과 도전을 겪었으며 현재도 역동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이 경험한 성과와 문제점,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세계교육포럼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각국 교육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이다.

## 이슈진단 및 분석

우리 대학 입장에서도 세계교육포럼은 오래 전부터 대학가에서 주요 과업으로 자리 잡은 국제화의 수준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500여명에 이르는 세계교육포럼 해외 참석자는 국제기구 수장, 2~3개국 정상,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부 장관, 다자기구 및 지역 협의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계의 대표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2015 세계교육포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대학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소개

**최정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UCLA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고등교육 전공으로 석사와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 국가사업책임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공저)』,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으며, ‘등록금 충당율에 따른 장학금의 효과 분석’, ‘대학생의 학습성과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평가, 대학생 학자금 효과, 국제화 및 교육개발협력 등이다.